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95

JCCT 2021-11-13

한국 장애학생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 모델 융합 재구성: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타당성 관점

Convergence Reconstruction of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Korea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Feasibility View on the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Linkage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김영준*, 김화수**, 권량희***

Young-Jun Kim*, Wha-Soo Kim**, Ryang-Hee Kwon***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타당성 관점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어 역시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은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을 학령기와 성인기 간 연계 관점에서 구체화하고자 한 선행 연구문헌을 분석한 절차를 기초로 하여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현행 특수교육 분야에 구축된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기 위해 IEP-ITP-ILEP 간 연계교육이 특수교육과 장애인평생교육 간에 학교 중심, 지역사회 중심, 교육, 복지의 관점을 근거로 일관적 연계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구축된 장애학생의 전환교육 모델이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시점의 단편적 접근 경향성을 최소화하고, 성인기 전체와 연계될 수 있는 표준 근거와 구성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현행의 전환교육 모델을 내용 측면에서 융합 재구성하였다.

주요어 :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융합, 재구성, 장애인평생교육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convergence reconstruction of the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Ultimately, this study was also conducted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ment of a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in connection with schools and communities. The research method consisted of a procedure with a meeting of experts based on the procedure of analyzing the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that tried to materialize the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from the viewpoint of connection between school age and adulthood.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reflected in the dimension of ensuring consistent connectivity validity based on the viewpoint of school-centered, community-centered, education, and welfare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reconstruct the conversion transition education model constructed in the current special education field. Accordingly, the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built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centered on school age minimizes the tendency of a fragmented approach between school age and adulthood, and presents a standard basis and structure that can be linked to the entire adulthood. The transition education model was reconstructed convergence in terms of content.

Key words : Students with Disabilities, Transition Education Model, Convergence, Reconstructio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정회원, 덕성여자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 연구원 (제1저자) Received: August 31, 2021 / Revised: September 12, 2021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Accepted: September 20, 2021
***정회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Corresponding Author: whasoolang@hanmail.net
접수일: 2021년 8월 31일, 수정완료일: 2021년 9월 12일 Center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Duksung Women's Univ, Korea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20일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 Korea
Dept. of Social Welfare, Busan Digital Univ, Korea

1. 서론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전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체제는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시작점은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 있어 연속적인 지원체제의 차원을 갖기보다는 학령기-성인기가 상호 단절되는 한계적 현상으로 이어진다 [1]. 특별히, 교육 단절의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회통합 및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비감각장애 유형의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그 심각성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2]. 단적인 예로, 학령기와 성인기 간 교육 지원체제는 의무교육 대 선택형 개별 수요교육의 형태로 다른 입장을 띠며, 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의 유관기관,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의 유형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3, 4]. 따라서 이상의 단절된 현상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특수교육 분야의 현행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 모델의 융합 재구성 노력이 요구된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환교육은 앞서 논한 장애인의 학령기와 성인기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등특수교육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교육모델·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한다 [5]. 특히,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시점에 대한 미래 역행계획(reverse planning) 차원에서 전환교육의 모델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환교육의 주요한 목표와 내용은 장애학생의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게 된다 [6, 7]. 그리고 장애학생이 성인기 전환 시 가정이나 시설 등에 미취업의 상태로 고립 및 의존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효과에 많은 중점을 둔 입장이다 [8]. 또한, 기존 관련 연구 동향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에 대해 조망된 관점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성인계속교육의 절차나 관점과 연계되기보다는 성인기 전환 이후의 즉각적인 결과 관점에 의미를 두며,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단기적 시점을 중심으로 성인생활 적응기간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9, 10].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성인생활 적응기간을 위한 전환과정의 제반 교육은 일반적인 서비스, 시간 제한적 서비스, 계속적 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 면에서나 내용의 질 면에서 단기적인 경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1].

학령기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적용 모델이 고등학교의 과정과

성인기 전환 시점 간의 간격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입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입장을 논하기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 교육 지원체제를 상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내용과 체계를 전환교육 모델에서 다루고자 하는 노력이 담보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2, 13]. 이런 내용과 체계만 구성될 수 있다면,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이 특수교육 분야의 일환으로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시점의 단편적 경향으로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성인계속교육의 일환이 되는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 대해 원활한 흐름과 방향성을 연계화시켜 주는 이점이 제고될 수 있다 [14]. 따라서 특수교육 분야의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은 장애인 당사자의 학령기와 성인기 간 교육 단절 현상을 최소화하고 상호간에 일관적인 교육 지원체제를 정립시켜 주는 주요 근거와 내용 구성체계로써 그 의미와 가치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상의 측면에 따라, 기존과 현행에 구축된 특수교육 분야의 전환교육 모델은 비판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첫째로, 장애학생의 독립적인 성인생활을 위해 학교급별 전환 계획과 실행의 체계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기능적 생활중심의 성격과 내용으로 장애학생의 기술 습득에 많은 중점을 둔 뿐 습득한 기술이나 현재 생활하는 환경, 이용 가능한 재활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등을 성인기의 어떤 교육과 서비스로 연계화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과 체계적 토대가 미흡하다 [15, 16]. 실제로, 특수교육 분야에선 장애학생마다 개별 맞춤형의 관점으로 전환교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개별화전환교육 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ning, ITP)의 실행과 문서 양식의 활용을 전개하고 있지만 학령기와 성인기 간 연결고리가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실질적인 성인생활 실태나 장기적 교육 지원체제의 방향성 제고 수준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제한점이 많다 [17]. 둘째로, 특수교육 관점에서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과 성인생활 적응을 위해 전환교육을 활발히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장애학생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독립생활을 성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각종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전환교육 영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 분야에선 명확히 사정(assessment)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맥락과 성격에 의해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시점 동안에

장애학생에게 전환교육 모델을 적용하는 차원일지라도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과 연계된 입장보다는 재활복지서비스에 의뢰하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다 [18]. 종합적으로, 특수교육과 성인기 장애인의 연결고리를 위해 타당하고 효과적인 근거로 활용되어야 할 전환교육 모델과 그 적용방안을 내용 체계 면에서 고도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장애인 당사자의 학령기와 성인기, 즉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의 타당성 관점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이 성인기 전환을 넘어 성인기 생애 전반에 걸쳐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과 연계된 장애인평생교육을 활발히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위 토대에 있어 전환교육 모델은 현행의 모델과 융합 재구성되어 커다란 구실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문헌 분석이 연구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및 적용방안을 다룬 선행 연구문헌을 1차로 수집한 후 장애인의 학령기와 성인기 간 연계를 통한 확장적 차원의 전환교육 모델 및 방략을 다룬 문헌을 2차로 변별 선정하였다. 문헌 수집에 따른 선정 결과, 장애학생의 중등특수교육 단계에서 1~2년 정도를 전망하는 수준의 교육 내용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학령기와 성인기를 장기적인 일관성의 형태로 재구조화하거나 확장한 모델 사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4][9-11][13][15, 16]. 구체적으로, 기존 선행 연구 문헌에서는 중등특수교육 단계에서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 시 취업 연계를 위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훈련, IEP 및 ITP 연계교육, 기능적 생활중심 교과교육 활성화 등의 모델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에 밀접한 중등특수교육 단계에서 조망된 절차이긴 하였으나, 대개 학령기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 가운데 성인기 전환에 따른 성인

계속교육의 형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성은 크게 제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5, 16][18].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학령기와 성인기 간 연계 교육 지원체제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인기 중심의 평생교육이 ‘교육’과 ‘복지’ 간 충돌된 관점에서 조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나타났으며,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결과(results)를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로 의뢰 및 전이하는 현상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역시 일관적인 타당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초래되었다. 조직적 기반 차원에서 ‘학교’ 중심의 학령기 특수교육에 대한 제반 결과가 ‘지역사회’ 중심의 성인기 교육(평생교육)에 대해 협조나 타당한 근거의 일반화 수준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양상을 띠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21]. 표면적 형식과 명분의 수준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성인기 교육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센터, 사업장 등의 기관들이 학령기 특수교육의 결과 정보를 참조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연계된 교육 절차와 방법을 성인기 생애를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모델이나 방안에 대해선 크게 고민하고 모색한 사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조망되고 있는 전환교육 모델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현행의 모델 동향과 결과를 융합 차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문제 인식과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 방법상에서 이차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주요 연구 내용에 해당하는 현행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는 정형적인 집단 면담의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았으며, 각 전문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연구 내용을 위한 모델을 일관적으로 개발 및 결과화시키는 절차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구 내용에 대한 모델을 도식화하고 이에 대한 관점을 해석하는 데 역시 중점을 두었다. 전문가 회의는 총 2개월 간 전개되었으며, 총 10회기(1회기 당 5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문가 회의에선 현행의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이 융합 수준에서 재구성되기 위해 다음 그림 1과 같은 구성 체계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위의 관점에 토대하여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반영할 몇몇 도식을 구체화하였다. 기본적으로, 그림 1에서는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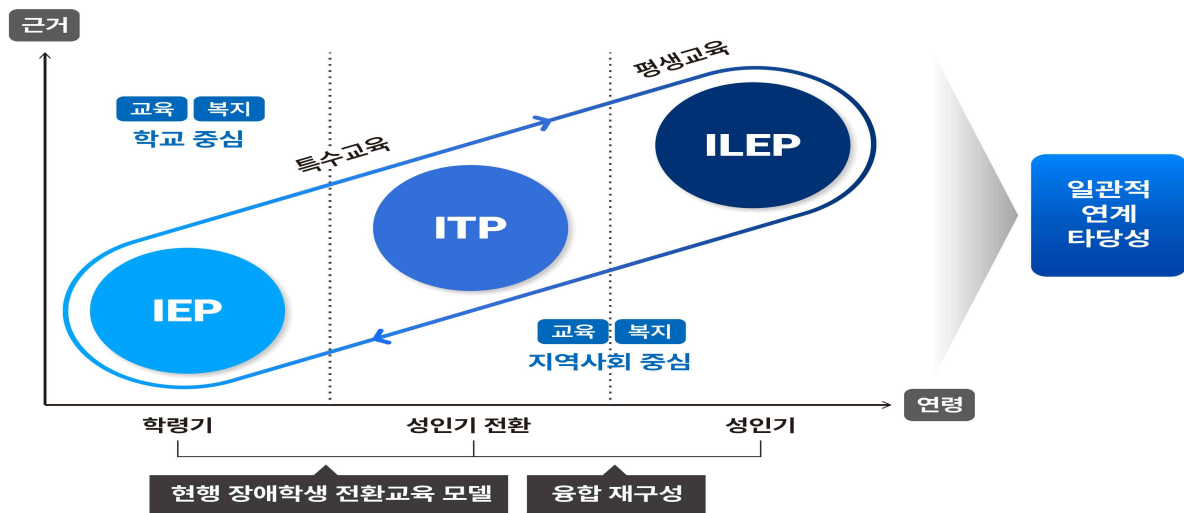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내용의 구성 체계도
Figure 1. Configuration scheme of research contents

당사자의 학령기-성인기 간 일관적 연계에 따른 전환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령기와 성인기를 구분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의 각 중심적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교육’과 ‘복지’의 관점을 어떻게 연계 및 구축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였다. 현행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환교육 모델을 고려함에 있어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ning, IEP), ITP, IEP 및 ITP 연계를 반영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관점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 조망 차원에서 개별화평생교육계획(individualized lifelong education planning, ILEP)까지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전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체제가 일관적이면서 장기적으로 타당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의 미래 성인생활을 위해 구축된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의 의미와 범주에서 재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IEP 및 ITP 연계를 IEP-ITP-ILEP 연계로 확장하고자 한 의도를 가졌다. 결과적으로, 그림 1에서는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서 ‘학교 중심’, ‘지역사회 중심’, ‘교육’, ‘복지’, ‘특수교육’, ‘평생교육’의 근거 속에서 일관적 연계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그림 1의 근거를 통해 실제로 한국형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을 실제적으로 융합 재구성할 수 있었으며, 본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보장되어야 할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되었다.

III.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융합 재구성

본 연구에서 한국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의 융합 재구성은 그림 2와 같이 마련되었다.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이론 및 적용에 대한 구도에 중점을 두어 그 구성 체계를 마련하였다. 즉,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실천 구도는 현행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로 그 구성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이를 놓고 본다면,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에 대한 내부 토대 차원에서 ‘교육’과 ‘복지’의 관점,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능적 구분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에 대해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재활복지서비스 중심의 관련 서비스로 명확히 분류 구성하였다. 이런 실천 구도는 장애학생의 전 학령기에 걸쳐 연계 전환되며, 그 교육 체계와 성과는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 시점에 이르기까지 연속된다.

토대를 수용하여 전문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역량 차원에서 어려움이 따르며, 장애인의 성인생활에 대한 종합 성과를 일관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나 이해도 역시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장애학생이 학령기 특수교육을 통해 전환교육 모델을 보장받고 성인이 전환을 이루는 절차와 구조 체계에 대해 현행의 전환교육 모델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지만, 학령기 중심의 전환교육 모델이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이 교육 지원체제에 대해 기여해야 할 내용 표준과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촉구하는 구실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 볼 수 있다. 덧붙여, 여러 장애 유형 중 비감각장애 유형에 속하는 발달장애 학습자의 경우 성인생활의 궁극적 결과라 할 수 있는 자립 및 사회통합을 치료 등의 관련서비스 보다는 특수교육 교수·학습 활동의 차원을 통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학령기 특수교육과 연계된 성인이 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전환교육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한편,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이 전환에 따른 성인이 전반의 교육 지원체제에 대해 평생교육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이를테면,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이다.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는 ‘교육’과 ‘복지’ 간 관점을 놓고 많은 논쟁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지만,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이 전환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의 융합 재구성 차원에서 본다면 주요 성격과 실천적 맥락은 ‘교육’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성인이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과 달리 ‘의무교육’의 지원체제이거나 정규 교육과정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 주관의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뿐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전반적 정책 개발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일부분의 근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과 연계된 ‘교육’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학령기 특수교육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평생교육(교과) 교육과정과 연계시켰다. 실제로,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교과교육과정에 구성된 지식 및 기술은 평생교육 교과교육과정의 지식 및 기술과 상호 융합 적용될 수 있는 이점이 제고될 수 있으며, 기초문해교육 등의 영역을 단

순한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이 아닌 교과 표준 및 교과목 차원으로 연계·응용시킬 경우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이 ‘교육’의 성격과 맥락에 의해 실천 운영되는 주요 토대라 할 수 있는 ‘학교’에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점 역시 제고해 볼 수 있다. 그림 2의 체계도를 보면, 장애학생이 학교 졸업 후 학령기 특수교육과정과 연계된 평생교육 교과교육과정을 보장받음으로써 성인이 전환 이후에도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토대화 역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성인이 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를 모색함에 있어 교육보다는 복지 관점에 의해 지역사회 차원이 조망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체가 학교화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현행의 동향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 조망되는 여러 기관들이 실제 학교기관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교육과정의 기반이나 전문인력 자격 양성 및 개입 등을 통해 학교 토대로 재구조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반영하였다. 단적인 예로, 현행의 특수교육 전공과가 장기적 다년(多年) 차원에서 평생교육 교과교육과정을 융합시킴으로 인해 조직 및 교육과정 체계상 재구조화될 수 있는 것이며, 대학의 인프라를 통해 역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및 학과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복지’의 관점에 기반을 둔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역시 대학이나 전공과 등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과정 기반을 일회적 경향의 교육프로그램 수준이나 일반평생교육 지식 및 기술을 장애 맞춤형으로 수정 및 조정하여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과 연계하여 체계화 및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실천 구도에서 교육과정이 법제적인 차원 등을 통해 구성체제로 확립되었다면, 동일한 성격과 맥락의 교육과정이 성인이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서도 표면적·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성인이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과 연계하여 교과화시킴으로 인해 성인이 전체의 전환 과정에 대한 계획 수립을 구조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의 체계도를 살펴보면 성인이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영역을 중심으로 ‘종합형’, ‘분과형’, ‘심화형’의 교과교육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 유형별 교과교육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콘텐츠 보급,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환교육 모델이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간 시점에서 뿐 아니라 성인기 전체를 포함한 전 생애 주기별로 확장될 수 있는 모델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법적 차원을 비롯해 실천 현장 면에서도 명확한 체계의 구축이나 타당성이 활발히 담보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종합형 교과교육, 분과형 교과교육 등과 같은 유형별 교과교육을 추진할 유관기관을 변별하여 선정·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림 2의 체계도와 같이 전환교육 모델을 통해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과 성인기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을 연계하고 이와 관련된 표준 근거를 활발히 마련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방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 동향에 있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가 민간 차원에서 몇몇으로 구축되었을 뿐 명료하고 합리적인 차원이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긴 하나, 그림 2의 체계도에서 밝힌 종합형 교과교육 등의 각 유형별 평생교육 교과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인력 역시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전문인력인 특수교사와 같이 전문교사형의 자격 차원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교사형 인력 개입이 그림 2의 체계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학령기와 성인기가 반영된 전 생애 주기에 있어 종적 전환 차원의 전환교육 모델이 융합 재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장애학생의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에 있어 재활복지서비스 중심의 관련 서비스를 반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관점을 제고하였으며,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전환 및 성인기 전체 시점에서 위 관련서비스의 성과 표준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를 몇몇 예시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의료재활, 사회 자조 모임 참여, 교육·생활비 혜택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재활센터 등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전문적 업무에 해당하며, 그림 2의 체계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지' 관점에서 교육 연계 복지 중점형, 코디네이터형 인력 개입의 근거가 융합될

수 있다.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을 비롯해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 있어 전환교육 모델을 매개로 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뿐 아니라 재활복지 중심의 관련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장애인이 교육교육을 통해 함양한 자립능력을 전반적인 성인기 진로설계 및 실행 차원에서 상담 및 사회서비스 제도 등과 연계하여 관리해 나가는 전문적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서비스는 교과교육의 성공적 성취와 일반화 효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역시 장애인의 특수교육과정이나 평생교육과정을 실제로 담당하진 않더라도 그 내용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재활복지 인프라와 상호 연계시켜 진로설계 및 실행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코디네이터(coordinator)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해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을 통한 전환교육 모델의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이와 관련된 결과가 성인기 전체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수준의 전환교육 모델로 융합 재구성되기 위해 현행과 미래의 동향 구도에서 고려 가능한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와 연계하였다.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환교육 모델의 기능은 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구실점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 있어 학령기와 성인기를 학교 대 지역의 체계로 구분하는 측면이 아니라 학교-지역사회를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및 성인사회통합 달성에 적합한 지원체제로 재구성 차원에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실태를 포함하는 특수교육의 실태 상황에선 이런 중점 사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전환교육 모델이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 안에서만 단편적으로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전환을 사정 및 조망하기 보다는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와 연계되어 학교-지역사회의 연계 지원체제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그림 2의 체계도는 장애학생의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여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의 타당성 관점을 제고한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을 통한 전환교육 모델은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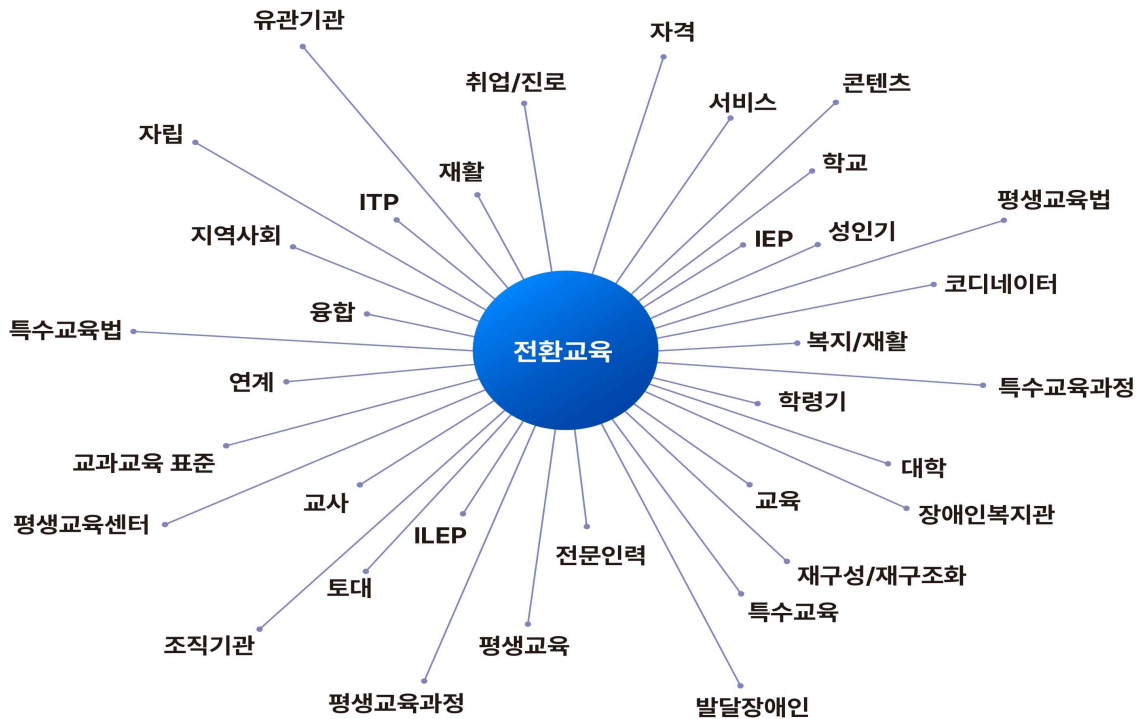


그림 3.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융합 재구성 관련 다차원적 요인 체계도
 Figure 3. A multidimensional factors system for convergence reconstruction of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타당한 관점과 여러 근거 아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와 융합되어 거듭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서는 이상의 관점과 가능성을 현행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구축하고 있는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에 대하여 내용 체계 면에서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그림 2의 체계도가 본 연구를 기점으로 후속 차원에서 거듭 보완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림 3의 다차원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도 강조하고자 한다. 앞의 그림 2 체계도를 통해 제시한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는 전환교육 모델이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과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타당한 융합을 위해 그림 3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는 노력이 담보될 때에 실제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계나 일선 현장으로부터 수용될 수 있다. 그림 2의 체계도는 그림 3에 제시된 다차원적 요인을 통해 개발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전환교육 모델로 하여금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관점에서나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관점에서 역시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타당하게 분류 구성된

교육과 복지 관점의 융합에 따라 조망할 수 있었다.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거듭 강조되어 온 동향과 같이 전환교육 모델은 학령기 중심의 관점에서나 성인기 중심의 관점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어떤 근거와 표준에 따라 연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일관되고 타당한 체계로 그 지원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가는 최대 관건이 된다. 앞으로 전환교육 모델은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의 맥락에 근거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관점에서 더욱더 확장된 광의의 차원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기존 구도에서 특수교육 분야가 인식하고 전문적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를 융합하는 주요 매개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현행의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 분야에서 구축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자립 및 성인사회 통합에 중점을 둔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학령기 중심 특수 교육 분야에서 구축한 전환교육 모델은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실효적인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시점의 단편적 기간 조망의 제한점을 비롯하여 성인기 전환 이후 계속교육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특수교육 연계 성과 근거 표준을 ITP 등의 차원에서 구체화하지 못해 본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생활적응 및 유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환교육 모델은 학령기 중심과 성인기 중심의 관점을 구분하는 단편적인 한계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이 응용·심화 등의 융합 차원에서 성인기 중심 장애인평생교육과 연계 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적 방안을 활발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전 생애 주기별로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타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을 비롯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 [1] Y.J. Kim, and R.H. Kwon,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 of Convergence Major in Lifelong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ies on Restaurant Employment Skill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7, pp. 136-144, 2021. <http://dx.doi.org/10.22156/CS4SM B.2021.11.07.136>
- [2] W.H. Kim, and Y.W. Lee, "A Study on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by Subject: Focused on the Six Major Area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6, pp. 623-649,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6.623>
- [3] S.S. Kim, "A Study on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of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Vol. 9, No. 1, pp. 1-23, 2019.
- [4] Y.J. Kim, and M.A. Do, "Discussion on Learning Style Assessment Methods in Evidence-Based Instructional Techniques for Independent Training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 Educ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21, No. 3, pp. 1-18, 2017.
- [5] K.Y. Kim, "A Delphi Research about Developing Lifelong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21, No. 3, pp. 1-18, 2017.
- [6] Y.Y. Choi, and S.H. Lee, "A Study on Perception and Task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4, pp. 133-139, 2020. <http://dx.doi.org/10.22156/CS4SMB.2020.10.04.133>
- [7] J.H. Kim, "A New Trend in Special Education :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 Life,"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35, No. 4, pp. 73-98, 2001.
- [8] Y.J. Kim, "The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Promotes the Establishment of Career Customized Lifelong Education Major Courses: The Reality of the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Disabled and the Revi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4, pp. 191-206, 2020.
- [9] A.R. Yoo, "Reality and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from a Transition Edu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15, No. 2, pp. 177-192, 2005.
- [10] Y.J. Kim, and M.A. Do, "Exploring the Convergenc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cademic System Boundaries at the Level of Imitation,"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pp. 79-84, 2020.
- [11] H.I. Kim, "The Study about Educational Suggestion from Theoretical Models of Transition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51, No. 4, pp. 1-18, 2008. <http://dx.doi.org/10.20971/kcpmd.2008.51.4.1>
- [12] Y.J. Kim, and J.Y. Kim, "A study on the Evidence-based Practices for Lifelong Education (Vo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1, pp. 351-359, 2018. <http://dx.doi.org/10.35873/ajma hs.2018.8.1.036>
- [13] W.H. Kim, "Exploring the Perceptions of

- Lifelong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Transitional Education: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Special Teachers and Subject Teacher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22, No. 3, pp. 141-170, 2020. <http://dx.doi.org/10.21075/kacs.n.2020.22.3.141>
- [14]Y.J. Kim, and R.H. Kwon,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at Home Using Contents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Attached to the University on the Acquisition and Generalization of Cooking Task Skills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ly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8, pp. 137-150, 2021. <http://dx.doi.org/10.22156/CS4SMB.2021.11.08.137>
- [15]Y.J. Kim, “The Convergence of Academic Speciality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y Evidence-Based Practices of Special Education: A Viewpoint of Preparing General Lifelong Education,”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 4, No. 4, pp. 75-89, 2020. <http://dx.doi.org/10.37181/JSCS.2020.4.4.075>
- [16]Y.J. Kim, “A Curriculum to Improve the Cooperation Course of 「Fostering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in the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of University,” *Journal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Vol. 7, No. 1, pp. 187-213, 2018.
- [17]K.H. Jang, and Y.J. Kim, “The Development on Scholastic History of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Teacherization’ of Lifelong Educators for the Disabled: The Practices of Convergence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Curriculum, Qualific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5, pp. 455-470, 2020.
- [18]Y.J. Kim, and R.H. Kwon, “Organized the Scope of Professional Competency Performance of Lifelong Educators for the Disabled: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Convergence System Development of Coordinator and Professional Educato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1, pp. 1123-1138, 2021.
- [19]Y.J. Kim, and R.H. Kwon,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at Home Using Contents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Attached to the University on the Acquisition and Generalization of Cooking Task Skills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ly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8, pp. 137-150, 2021. <http://dx.doi.org/10.22156/CS4SMB.2021.11.08.137>
- [20]Y.J. Kim, and R.H. Kwon, “The Effects of Online-based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rough Key Words Card Production and Class Demonstration on Job Preparation Skills for Workplace of Work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9, pp. 241-255, 2021. <http://dx.doi.org/10.14400/JDC.2021.19.9.241>
- [21]Y.J. Kim, J.K. Park, and R.H. Kwon, “The Effects of Online Home Learning in Connection with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t University on Cafeterias Cooking Assistance Skills of Job Searc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9, No. 3, pp. 188-201, 2021.